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359

JCCT 2022-5-44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연구

A Study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a Creative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박영주*

Young Joo Park*

요약 본 연구는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학습자 중심의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시창·청음에 대한 특징과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관련 내용의 특징들을 유목화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모둠별 활동을 통한 수업환경의 다양화 및 MyEarTraining과 Musescore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환경을 제안하였다. 둘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은 물론 예비 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 있어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시창·청음, 음악교육, 학생중심교육, 교수·학습 전략

Abstract This study was to provid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to develop a creative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that aims to design student-centered educa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as well a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analy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following meaningful strategies were derived. First, a student-centered teaching environment was promoted by diversifying the teaching environment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learning environment using MyEarTraining and Musescore applications. Secon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were proposed to improve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skills by applying for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cultivating the qualities of a pre-service teache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meaningful fundamental data in developing specific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for a creative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Key words :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Music Education, Student-centered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1. 서론

악보를 읽고 쓰는 것은 음악을 이해하는 매우 기초적인 능력이다. 물론 악보를 보지 않고 귀로 듣거나, 들은

곡을 회상하거나 혹은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음악을 향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악보를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더 다양하고 방대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음악에서는 처음 보는 악보를 보고 노래 부르는 것을

*정희원,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9일

Received: April 30, 2022 / Revised: May 6, 2022
Accepted: May 9, 2022
*Corresponding Author: yj9097@gmail.com
Dept. of Music Education, Kyungnam Univ, Korea

시창이라고 하며, 들리는 소리를 악보로 적는 것을 청음이라고 한다. 시창과 청음은 모든 음악 전공자들이 길러야 하는 기초적인 음악 능력이다. 특히 예비 음악 교사의 시창·청음 능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시창·청음 수업을 기본 이수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자격시험으로 채택하고 있다 [1].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음악적 경험이나 배경지식, 세부 전공은 물론 다양한 수준의 시창·청음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분반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 수업에서 환경적, 경제적인 이유로 분반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창·청음 교수 방법 면에서도 교수자가 음을 연주하면 음을 받아쓰고, 새로운 악보를 제시하면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단조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2-4]. 안타깝게도 교수자 대부분은 이러한 방법 외에 다른 교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4]. 또한 시창·청음 수업 시간에 기계적인 연습 교재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시창·청음 교재에서 시대적 변화도 찾아보기 힘들다 [5]. 비록 시창·청음 수업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지만, 타 연구 분야에 비하면 학술연구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다. 특히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시창·청음 수업이 시행된 기간 및 그 중요성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수에 해당한다. 시창·청음 능력이 단기간에 향상할 수 없는 능력임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창·청음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대학 현장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환경을 지향하고, 학생들의 포괄적 음악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시창·청음 과목의 경우 개인의 음악성 개발이라는 목적 외에도 향후 음악 교육 현장에서 정확한 음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창·청음 프로그램이 타 영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시창·청음 수업을 통해 교수 역량은 물론 포괄적 음악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조로운 수업환경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창·청음 수업환경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시창·청음 프로그램 관련 문헌들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유목화하여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적용하여 예비 음악 교사의 시창·청음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II. 시창·청음의 이해

1. 시창과 청음의 특징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은 음악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시창은 새로운 악보를 보고 정확한 리듬과 음정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McClung은 악보에 적혀있는 것을 처음 보고, 바로 소리로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소리가 Gordon이 말하는 오디에이션(audiation)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내면적으로 오디에이션 활동 후 외면적인 소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창은 리듬과 선율을 노래하는 것 외에도 썸머림(dynamic), 악상기호(articulation)를 표현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창은 정확한 리듬으로 선율을 노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7].

청음은 소리를 듣고, 들은 소리를 악보로 적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양한 인지적 상호과정이 필요하다. 청음 훈련에서 중요한 음악적 요소는 음정, 리듬, 선율, 화성이며, 학생들이 음정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빠르기에서 다양한 리듬 패턴을 듣고 악보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8]. 현장에서는 청음 수업은 리듬과 선율을 듣고 적는 활동과 화성 연습을 주로 실시하며, 특히 리듬을 듣고 적는 활동은 서양 음악이론 수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간주된다 [9].

시창과 청음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Rogers의 청음과 시창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청음 능력은 시창, 연주 능력, 작곡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음악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악보를 보고, 악기 소리 없이 악보를 읽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선율을 듣고 이를 적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0].

2. 시창·청음 수업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

시창 수업은 교수자가 새로운 악보를 나눠주고, 학생들은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악보를 살펴본 뒤 이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음도 교수자가 직접 악곡을 연주하면 학생들은 이를 듣고 종이에 적으면서 진행된다. 이러한 단순한 수업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다양한 수업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실행되었다.

Sheldon은 기존 악곡을 시창·청음 수업에 활용하여 시창·청음 오류검출 능력을 연구하였으며, 새로운 악곡보다 기존의 악곡을 사용 시 오류 인지 능력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11]. 김혜실은 학생들에게 수준별 시창·청음 수업이 실행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하여 시창·청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음악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업 태도의 개선을 끌어낼 수 있었다 [12]. 김예슬, 전운한은 음정의 형상화를 활용하여 재즈 코드를 시창·청음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와 시창·청음 능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2].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아쉬움도 있다. 첫째, 오래된 시창·청음 교재에서 벗어나 기존의 악곡을 활용했던 점은 매우 창의적이나 악곡 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김혜실의 연구에서 수준별 시창·청음 학습을 진행하였던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하나, 14주 5시간씩 설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학이나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시창·청음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질적 자료로서 제시되어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타 음악 영역보다 시창·청음 능력은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 가능한 영역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 후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면 신뢰성 높은 연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창 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고정

도법(fixed do), 이동도법(movable do), 음정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melody pitch numbers), ‘라(la, lah)’와 같은 중립적인 언어(neutral syllabus)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며,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 [7]. Kuehne은 시창·청음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Kodály의 손기호(hand sign)와 리듬음절, 이동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고정도법보다 이동도법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시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3]. 이에 반해 Larson은 어떤 솔페주(solfege) 방법이 좋은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정한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 악곡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솔페주 방법을 선택해서 학생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14].

시창 교육에 있어서 McClung은 Curwen의 손기호가 학생들의 근감각능력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 Curwen의 손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학생과 달리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손기호와 함께 시창을 학습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손기호가 학생의 근감각능력과 연계되어 시창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5]. 하지만 Frederickson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음정을 노래할 때 음정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시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6].

청음 교육에 있어서 들리는 소리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학생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을 스스로 떠올리면서 적는 훈련도 청음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더욱이 음정을 기억하거나 음색을 기억하는 것은 시창·청음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gmond와 Boswijk은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청음 수준과 관계없이 감화음(diminish) 혹은 이끔음(leading note)을 듣고 모두 근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7]. 반면에 그들은 참가자들이 코드의 음색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어진 화성 구조 안에서 근음을 찾아 노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참가자들이 음색을 기억하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기억학습’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왕립음악학교연합회(Associated Board of Royal School of Music)에서 출판된 청음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교재에서는 4급부터 교사가 3~4마디의 간단한 선율을 연주하면, 학생들은 이를 외워서 노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8급에서는 세 성부의 음악 중 가장 낮은 성부 선율을 외우도록 요청하고 있다 [18]. 다시 말해,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학생들은 음정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며, 결국 청음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수준별 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시창·청음 학습 환경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19] 외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창·청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esek et al.은 리듬 받아 적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청음 학습에 대한 동기 및 흥미를 높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리듬 받아 적기 활동이 가능함은 물론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외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지속가능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하지만 시창·청음 프로그램은 접근 및 실행에 있어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해당 콘텐츠의 내용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III.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1. 모듈별 활동을 통한 수업환경의 다양화

시창·청음 수업의 수준별 학습이 매우 필요하지만 부족한 교실과 강의료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 교실 외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는 전공 연습실을 활용하고, 모듈 활동을 통한 학습자 중심 수업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창·청음 수업환경을 ‘전체-부분(전공 연습실을 활용한 모듈별 학습)-전체’의 일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전체’ 학습은 학생들이 20분 동안 한 교실에서 해당 차시의 전체 수업을 함께 참여하며, 이때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 및 성취 수준, 모듈 활동과 활동지를 교수자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듈별 활동지에는 모듈별 수준을 고려한 모듈별 학습 목표와 성취 수준을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은 구체적인 모듈별 활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분’에 해당하는 모듈별 학습 시간은 보통 40분 정도로 소요되며, 전공 연습실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모듈별 학습 시간에는 4~5명의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모듈별 학습을 진행하며, 이때 각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동료 교수자’를 정하여 학생들이 모듈 활동 속에서 교수 역할은 물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다.

‘부분’ 과정 후 ‘전체’ 학습은 일반적으로 40분간 소요되며, 처음과 같이 한 교실에 모여 전체 학습을 진행하거나, 형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 및 성취 수준에 대한 자신의 개별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종료 후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개별학습을 하여, 학생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강화하여 학습할 수 있다.

2. ICT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 제공

학생들에게 시창·청음 수업을 주 1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스스로 시창·청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Arnold는 일주일에 15분씩 4~5번 정도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 1시간 동안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주 들을수록 학생들에게 소리가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20].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수업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생들의 학습을 도모하고 있다. 교수자는 LMS를 활용하여 과제를 제시하거나 보강학습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수업을 고안할 수 있다 [2]. 하지만 ICT를 통해 제공되는 과제는 교수자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 살펴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일이며, 평가 역시 교수자들에게 또 다른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평가 결과를 즉시 알 수 없고, 늦은 평가 결과는 학생의 학습 속도 및 흥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즉시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교수자 입장에서 학생 규모가 큰 경우에 피드백이 쉽지 않다.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21].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MyEarTraining(MET) 앱(ap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MET는 구글 스토어(Google play store)와 애플 스토어(Apple store)에서 제공되는 무료 시창·청음 연습을 위한 앱으로 스마트폰에서도 효과적으로 구동된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하며, 기초적인 음정 활동을 비롯하여, 리듬 듣고 적기, 화성 듣고 맞추기, 스마트폰에 대고 음을 노래하는 솔페주 등 수준별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문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부족한 문항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을 수 있거나 노래 부를 수 있다. 20개 문항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학생들은 적절한 내용을 부담 없이 풀고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그림 1과 같이 일별 성적 및 이용 시간을 퍼센트와 막대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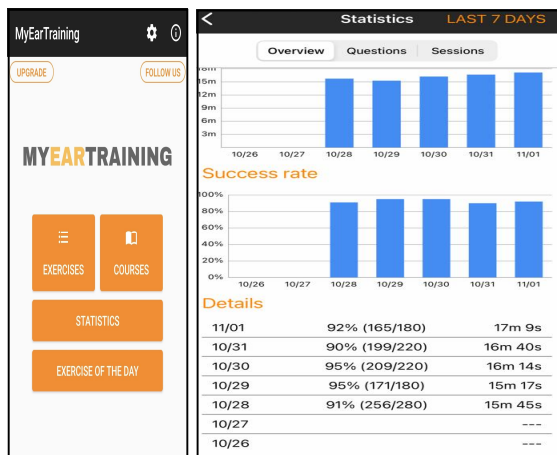


그림 1. MET의 메인 화면 및 일별 학습 통계 그래프
 Figure 1. The main screen and daily learning statistics in MET

MET 외 Musescore를 시창·청음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시벨리우스(Sibelius)와 피날레(Finale)의 경우 유료 사보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Musescore는 무료 사보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보 방법이 직관적이어서 짧은 교육 시간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전문가까지 활용할 수 있다. Musescore는 다양한 악기의 사보뿐만 아니라 사보 하거나 혹은 창작한 악보를 자동으로 연주하고 이를 녹음 및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포괄적 음악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제재곡과 암보를 통한 기초 음악 능력 향상

시창·청음 수업의 목적이 리듬과 음정 능력 향상 외에도 음악적 지식과 감성을 기르는 것임을 고려해 보면 [22] 시창을 위한 비 선율적인 악곡은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 역량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개인의 음악성 개발은 물론 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의 악곡을 노래 부르고, 듣고 적을 수 있어야 하므로 시창·청음 시간에 중등 교재에서 제시된 악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창·청음 능력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Lar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비 교사로서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는 제재곡 중심으로 악곡을 선정할 수 있다 [14]. 또한 각 주차별 학습 내용은 2015 개정 음악과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때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곡 중 악곡 전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중요한 리듬과 음정이 포함된 4~8마디를 선택 및 발췌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명곡이나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악곡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정확한 리듬 혹은 음정을 읽고 연습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잘 알려진 악곡의 리듬은 그대로 두고, 선율의 음정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악곡을 시창·청음 모두에 활용할 경우 시창을 먼저 하도록 하며, 청음 활동 시엔 중요한 리듬은 그대로 두고, 음정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시창·청음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소리의 다름(difference)’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소리의 다름을 쉽게 구별할 수 없지만, 상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음정을 반복하여 듣고, 음정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23], 이는 시창·청음 능력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혜실은 음악을 기억하여 기보하는 청음 활동은 음악 감각 능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조성기 외도 효과적인 시창과 청음의 통합연습에서 듣기, 외우기, 기보하기, 노래하기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다시 말해, 암보 활동은 학생들에게 음정을 기억하게 만들어 시창·청음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고등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은 선율적이어서 학생들이 쉽게 암보할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암보한 악곡을 기억해 내면서 자연스럽게 Gordon이 주장하는 오디에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4. 다양한 음악교수법의 적용

시창·청음 수업을 위해 Kodály 손기호와 리듬 음절의 Jaques-Dalcroze와 Orff의 교수법은 물론 Gordon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활동들이 인지적 반응 외 다양한 신체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향후 음악을 감각적으로 반응하여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음악교수법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듈별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학습 목표 및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전체 학습 목표 및 성취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의 시창·청음 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헌 연구를 통해 시창·청음의 특징 및 다양한 수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전략들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시창·청음 수업환경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도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창·청음 수업은 교수자가 제시한 곡을 학생들은 노래하거나 혹은 교수자가 피아노로 악곡을 들려주면 학생들이 이를 받아적는 단순한 수업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전체-부분-전체’의 구성 및 ICT를 활용한 개별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채로운 수업 환경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수업환경보다 작은 규모의 수업환경에서 시창·청음 활동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학생은 전체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는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료들 간의 지도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

으로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자극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시창·청음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시창·청음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음정, 리듬감 등을 인지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내재화함은 물론, 모듈별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시창·청음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창·청음 활동에서 중등학교 수준의 제재곡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노래하는 즐거움, 쉬운 암보, 악곡 부분 변형 및 창작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경험하여 시창·청음은 물론 포괄적인 음악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의적인 시창·청음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예비 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중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다양한 악곡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모든 악곡을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음악과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을 시창·청음 시간에 활용함으로써 예비 교사들의 중등학교 수준의 제재곡에 대한 레퍼토리를 확장할 수 있다. 특히 모듈별 활동 시 동료 교수자로서 역할 함으로써 예비 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창·청음 수업은 강의식 수업으로 제시되며, 문헌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 교수자는 이러한 방법이 최선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시창·청음 능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조력자로서 학생 수준에 맞는 활동을 제시하고, 보완해 줌으로써 그 역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강의 중심으로 제시된 시창·청음 수업을 학습자 중심 수업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창의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수업 과정안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oon, E., Research on Performance Assessment for Selection of Middle-school Music Teachers (2008-2019),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S. Korea, 2019.
- [2] Y. Kim and Y. Jeon, “Development and

- Implementation of Jazz Chord's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Program through the Shape of Musical Interva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47, No. 4, pp. 21-48, 2018.
- [3] S.J. Ryu,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Dalcroze Solfege Method," *Korean Society for World Music*, Vol. 34, pp. 169-204, 2016.
- [4] I. Ham, "A Study on 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Preservice Music Teacher Education of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Vol. 29, pp. 157-182, 2016.
- [5] H. Shin, "The Study of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0, pp. 3673-3679, 2010.
- [6] D.L. Collins, *Teaching Choral Music*, Prentice-Hall, 1993.
- [7] A. McClung, "Sight-singing Systems: Current Practice and Survey of All-state Choristers,"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20, No. 1, pp. 3-8, 2001.
- [8] S. Kesjamras, "The Approach of Teaching Ear Training for University Student: in a Case of Private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hailand," *Assumption University e-Journal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Vol. 3, No. 2, pp. 174-181, 2018.
- [9] M. Pasek, L. Suhadolnik, P. Šavli, and M. Marolt, "Motivating Students for Ear-training with a Rhythmic Dictation Application," *Applied Science*, Vol. 10, pp. 6781-6790, 2020.
- [10] M. Rogers, "Aural Dictation Affects High Achievement in Sight Singing, Performance and Composition Skills,"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Vol. 1, pp. 34-52, 1994.
- [11] A. Sheldon, "Effect of Contextual Sight-singing and Aural Skills Training on Error-Detection Ab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46, No. 3, pp. 384-395, 1998.
- [12] H.S. Kim, "Action Research for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Program based on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Vol. 43, No. 4, pp. 115-139, 2014.
- [13] J. Kuehne, "A Survey of Sight-singing Instructional Practices in Florida Middle-school Choral Program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55, No. 2, pp. 115-128, 2007.
- [14] S. Larson, "The Value of Cognitive Models in Evaluating Solfege System," *Indiana Theory Review*, Vol. 14, No. 2, pp. 73-116, 1993.
- [15] A. McClung, "Sight-singing Scores of High School Choristers with Extensive Training in Movable Solfege Syllables and Curwen Hand Sign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56, No. 3, pp. 255-266, 2008.
- [16] Frederickson, K.B., *The Relationship of Spatial Ability and Encoding Ability to Kodaly Hand Signs and Singing Performance*, Ph.D Thesis.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USA., 1992.
- [17] R. Egmond and M. Boswijk, "The Perception of Key: The Role of Music Training," *Music Perception*, Vol. 25, No. 1, pp. 31-42, 2007.
- [18] Son, S.J., *Study of 『ABRSM's Aural Test』*, Master Thesis, Myungji University, Gyeonggido, S. Korea, 2011.
- [19] Hong, M.Y.,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CT to Sight Reading and Ear Training in Music Classes in Middle School*, Master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S. Korea, 2007.
- [20] B. Arnold, *A Fanatic's Guide to Ear Training and Sight Singing Volume 1*, Muse Eek Publishing Company, 2001.
- [21] K. Nam and S. Lee,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using application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2, pp. 19-25, 2021.
- [22] S. Cho, I. Ham, J.H. Lee, and M.Y. Jeong,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1.
- [23] D. Deutsch, "Music Re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76, No. 3, pp. 300-307, 1969.

※ 이 연구결과물은 2020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